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라. (마태 25,1~13)



[제 1독서] 민수 6,22-27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 12-13, 14와 16(17~)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제 2독서] 야고보 4, 13-15
 [복음 환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복음] 루카 12,35-40

성가	8시 미사	입당 329	봉헌 217	성체 154 165	파견 461
	11시 미사	입당 329	봉헌 217	성체 154 165	파견 46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설미사(2월 15일)		사순 제 1주일(2월 22일)		사순 제 2주일(3월 1일)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3 구역 : 전윤자 데레사		정일환 프란치스코	4구역 : 김순희 글라라	채성일 토마스	1 구역
제 1 독서	3 구역 : 조진행 바실리오		채성일 토마스	4구역 : 정석준 요한	강신호 요한	1 구역
제 2 독서	3 구역 : 팽정숙 데레사		정애리 스텔라	4구역 : 정인경 가브리엘라	김영선 안젤라	1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세모(歲暮), 세시(歲時) 풍속과 그리스도교 신앙

정월 초하루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릴 적 어른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설달 그믐날 밤을 지새우지 않고 일찍 잠들면 새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썹이 새하얘진다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유래한 우리 선조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엌에 머무는 집안 수호신인 조왕신(부뚜막신)이 설달 스무 나흘날 밤하늘에 올라 옥황상제에게 한 해 동안 그 집안의 상황을 보고하고, 설달 그믐날 밤에 한 해의 심판과 새해 길흉화복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민간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마지막 날, 온 집안 구석 구석에 촛불을 밝혀놓고 조왕신이 돌아오는 것을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밤새워 깨어있으라는 권고입니다.

조왕신을 기다리던 세밑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일 년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며, 보다 나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간신앙이 대부분 현세구복과 관련되었는데, 조왕신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해를 흥청망청 마무리하는 망년의 개념보다는 지나가는 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가올 새해를 생산적으로 준비하려는 건전한 풍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거래 관계에서도 채권자는 그믐날 자정 이전까지만 채무를 요구하고, 이후 정월 보름까지는 빚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한 시름 돌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제공하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던 ‘복’이 분명 현세구복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시겠다던 복은 오늘 제2독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얻게 되는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

는 주인을 위하여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두고 깨어 기다리다가 곧바로 문을 열어드리는 종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복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상 잔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주변에서 망년이라는 말 대신에 송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저 한 해를 잊자고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그해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듯이, 현세의 삶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 살아야 내세의 영원한 행복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 올미년에든 여러분 모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생명의 말씀

나·병(病)·환(歡)·자(慈)

1.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 (레위 13,46 참조)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어제 새로 서임되신 추기경님들과 함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감사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영 추기경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번에 교황님께서 붉은 모자(biretum rubrum)를 씌워 주신 이탈리아 람페두사(Lampedusa) 섬이 속한 아그리젠토(Agrigento) 대교구장 몬테네그로(Montenegro) 추기경님의 서임은 정말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뛰어넘는 교황님의 깊은 뜻은 전쟁과 가난 때문에 고향인 아프리카를 떠난 이들을 환대(歡待)한 람페두사의 사목자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 이주민(移住民)들을 위하여 울어줄 것인가?”

2.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1코린 11,1)

제 3회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인 산청 성심원의 유익배(Luis Maria Uribe) 신부님은 “요즘 완치가 가능해진 한센병은 천형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병입니다. 세상의 편견 때문에 속이 썩어들어가는 병이죠.” 라는 말로써 우리들의 닫힌 마음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병환자 치유가 ‘가없는 마음’ (마르 1,41 참조)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가없는 마음’ 이 들기 시작하면 공감(共感)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동정(同情)을 일으켜서 개심(開心)하도록 도와줍니다.

3.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마르 1,44)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사랑과 책임」에서 “인간은 보이는 세상과 통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인 하느님과도 통교한다.” 고 가르쳐주십니다. 사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이미 자신 안에 ‘통교의 은사’ 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대, 곧 받아들여 끌어안음’ 의 삶을 살아야 할 소명을 지닙니다. 때문에 교황님께서서는 “배척의 문화를 뒤로 하고 환대의 문화로 나아갈 때” (2014년 세계 인민의 날 담화 참조) 우리 자신의 실현도 이룰 수 있다고 권고하셨습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알아 뵈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나는 병(病)들어 고생하는 너희들에게 환(歡)대의 문화를 살게 하여 치유되게 하는 자(慈)비로운 하느님이다.”

[나 병(病) 환(歡) 자(慈)] 그러므로 ‘나병환자의 치유’ 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마음을 열게 하는 성사(聖事)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가르멜의 산길」에서 “성부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또 단 한 번에 말씀하셨다.” 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곧 시작될 사순 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시길 빕니다.

아멘.

정연정 신부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



자만과 배타의 ‘초막’을 걷어내고
가난한 형제들 안에 현존하시는
성자를 알아 뵈옵게 하소서

글 성무일도 청원기도 참조
그림 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기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루하루 견디며 각종 국내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대학교 때는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있어 첫 번째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2003년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하며 금메달 후보로 기대를 받고 있던 저는 만나고 싶지 않은 두 명의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회전과 2회전에서 만난 선수 모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60kg, 66kg 은메달을 획득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시합 첫째 판, 오스트리아 파이셔 선수는 역시 강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밀어붙인 끝에 1분을 남기고 절반을 딸 수 있었습니다. 상대도 세계 밀어붙이기 시작했지만, 결국 20초를 남기고 한판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판, 프랑스 다비드 선수를 만났습니다. 전 60kg였고 다비드 선수는 66kg여서 같은 체급으로 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2회전에 들어가자마자 절반을 던졌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4분 30초는 방어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승리했지만 걸어 나올 힘도 없어 시합장을 나오자마자 감독님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경기가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출전을 준비하라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어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서는 바로 시합장을 향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준결승까지 3시간 정도 쉴 수가 있어서 정말 이를 꼭 깨물며 시합에 임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고 상대는 세차게 밀어붙였습니다.

전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체에서 쥐가 나 팔이 제압되었습니다. 하체로 밀고 나오려고 하는데 하체에서도 쥐가 나 놀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의 기억은 쉽게 잊혀 지지 않았습니다. 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와서 쥐난 곳을 바늘로 찔러 피를 빼고 나서야 팔과 다리가 편안해졌습니다. 3시간 휴식 후, 세 경기를 더했습니다. 패자전이어서 이기면 3위를 할 수 있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자마자 전부 한판승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힘들게 딴 동메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3등을 하고도 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커녕 그만두고도 싶었습니다. 경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모순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의 올림픽은 끝이 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하고 계셨고, 제 마음 안에 유도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힘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최민호 바오로
유도코치

성경산책

모세의 대변자인 아론

오늘 제 1독서에 등장하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론 역시 동생과 운명을 같이합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반면, 반대로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연합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론도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그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습니다.

그의 출중한 웅변 실력은 파라오와 대적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 유감없이 드러났지요. 오늘날에도 말을 잘하는 것은 정치가에게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최고의 협조자였습니다.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간신히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생활에서도 아론은 모세 곁을 충실하게 지켰지요. 어느 날 하느님은 모세를 시나이 산으로 부르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시나이 산에 올라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함흥차사니, 그럴잖아도 오랜 광야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2인자였던 아론에게 물러가서 격렬하게 따집니다. 아론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등장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탈출 32장

성경에서 아론은 동생 모세를 대할 때 민족의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정면으로 일을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과 우유부단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사실 아론은 백성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아론은 모세를 시키하고 대립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모세는 형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기면서 두 사람은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에게 말한 이들도 바로 모세와 ()이다.”(탈출6,27)

“너의 형 ()과 그의 ()들에게 이것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을 부여 직무를 맡기고 성별하여, ()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탈출28,41)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2월 17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2월 19일 목	생	본당신부님	임루시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9	171	22	282
헌 금	\$553	\$1,036	\$13	\$1,602

< 교무금 > \$3,500

조관식(2) 유제청(2) 서춘애(1) 조우송(3)
 김관숙(2) 남금지(2) 임윤택(2) 김형준(1-2)
 이경섭(1-2) 조진행(2) 김영길(1-2) 송성숙(1-2)
 박종영(1-3) 허동원(1-2) 양우선(1-2) 최윤기(1-2)
 이상용(1-2) 최몽열(1-2) 유인웅(1-3) 육승주(2)
 김근원(2-3) 이선희(2) 허미카멜(2) 이명란(2)
 심재구(1-2) 한치용(1-2) 정석준(1-2)

< 성소후원금 > \$200

서춘애(1) 임윤택(2) 김형준(1-2) 조진행(2)
 최윤기(1-2) 이상용(1-2) 이명란(2)

< Bishop's Appeal > \$120

서춘애(1-2) 조진행(2) 최윤기(1-2)

< 감사헌금 >

김순이 \$100

< 초봉헌 >

익명 \$50

~~~~~ 오늘은 설맞이 전신자 점심이 제공됩니다. ~~~~~

- 공 지 사 양 -

◆ 오늘 : 설합동위령미사

◆ 전례 안내

\* 2월 18일 : 저녁 7시 30분 재의 수요일(단식과 금육)  
\*\*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2차 헌금

2월 22일 :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헌금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성지가지를 오늘까지 성당입구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사순피정

2월 27일(금) 저녁 미사 후 영상 십자가의 길  
\*\* 이 날은 미사 전 십자가의 길이 없습니다.  
3월 1일(일) 점심 식사 후 강의  
- 주제 :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 친교실에서는 바오로딸 도서선교가 있습니다.

◆ 모임

\* 트랙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2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구역반장회의 : 2월 22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성모회 총회

2월 15일(오늘) 미사 후 106호실  
\* 65세 미만의 자매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 본당 울뜨레야 모임

2월 15일(오늘) 미사 후 107호실  
\* 간사 선출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글랜드      | 2월21일(토)6시   | 명광식니콜라오덕     |
|    | 알라메다 S/N  | 2월21일(토)6시   | 이창용레이몬드덕     |
|    | 샌리엔드로 E   | 2월21일(토)6:30 | 박영자마리아덕      |
|    | 샌리엔드로 W   | 2월21일(토)5시   | 성태성루카덕       |
|    | 실버반       | 2월28일(토)2시   | 파운더스룸        |
| 2  | 프리몬트 S/N  | 2월22일(일)6시   | 강시구안드레아덕     |
|    | 유니온       | 2월22일(일)6시   | 최환준베네딕토덕     |
|    | 헤이워드      | 2월25일(수)6시   | 심태규미카엘덕      |
|    | 캐스트로밸리E/W | 2월28일(토)6시   | 이종규미카엘덕      |
| 3  | 리치몬드/버클리  | 2월21일(토)5시   | 정일환프란치스코덕    |
|    | 알버니 YB    | 2월21일(토)6시   | UC Village # |
| 4  | 라스모어      | 2월25일(수)5시   | 김광석베드로덕      |
|    | 월넛크릭      | 2월28일(목)6:30 | 허순구리우렌시오덕    |
|    | 콩코드       | 2월28일(토)7:30 | 김휘안토니오덕      |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일시 : 2월 26일(목) 오후 4시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 510-566-0582

◆ 여성 10차 꾸르실료 주말 봉사자 신청

꾸르실료 주말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신청 : 이창용 레이몬드(간사) 510-688-0157

◆ Brown Bag 봉사활동과 후원요청

\* 금년도 Brown Bag 배급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1년 등록비 \$10을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Brown Bag 식료품 구입과 수송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자의 Donation을 받고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친교실 Brown Bag Desk  
\*\* 봉사활동에 도움 주신 분 : 심재구 \$100  
레지오마리아 \$50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율리안나(2/16) : 이줄리

주일학교 소식

- 영어미사 : 오후 12시 30분  
- 2월 15일 : 휴강(합동미사)

안국학교 소식

- 2월 21일 : 선행사